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제 15권 1호 (2014. 4) pp. 89～103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15 Iss. 1 (April, 2014)

한국과 일본 취업모의 직무 및 육아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코야마 요시노리*·박지선**·박천만***†·나카시마 노조미****·나카지마 가즈오*****
*오카야마현립대 대학원 보건복지학연구과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료비헬시케어
*****료비개호복지연구소

The Effect of Working Mother's Job and Parenting Stress on Child Care in Korea and Japan

Yoshinori Koyama*·Ji-Sun Park**·Chun-Man Park***†·Nozomi Nakashima****·Kazuo Nakajima*****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Welfare, Okayama Prefectural University
**Social & Child Welfare, Woosong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Keimyung University
****Ryobi Healthy-Care
*****Ryobi Research Institute of the Well-being for the Elderly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job related stress and child care using data from working mother's in Korea and Japan.

Method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urvey of 125 Korean mothers who used childcare facilities in two cities and 170 Japan mothers who used childcare facilities in two cities. The questionnaire sought information about the mother's age, age of the youngest child, family composition, mother's occupation, parenting stress, job stress, appropriate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maltreatment. Based on this survey data, it was tried to reveal the effective paths between parenting stress, job stress, appropriate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maltreatment in order to provide the rationale for intervention by using SEM.

Results: Child ca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ed by parenting stress and job

접수일 : 2014년 4월 7일, 수정일 : 2014년 4월 23일, 채택일 : 2014년 4월 26일
교신저자 : 박천만(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Tel: 053-580-5451 FAX: 053-580-5451 E-mail: cmpark@kmu.ac.kr

stress for both Korean and Japanese working mother's.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uggest the need to establish work-life balance policies to improve the balanced lives of working mother's.

Key words: Working mother, Parenting stress, Job stress, Child care, Maltreatment

Ⅰ. 서론

한국과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화 정책을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가정 내 성별역할분담이라는 젠더이데올로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맞벌이 세대가 보편적인 가정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97년 이후 맞벌이 가구수(949만 가구)가 홀벌이 가구수(921만 가구)를 상회하였고(총무성 통계국, 1997), 한국에서는 2011년에 유배우자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수(507만 가구)가 홀벌이 가구수(491만 가구)를 넘어섰다(통계청, 2012).

맞벌이 가정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적인 영역에서의 노동활동과 사적인 영역에서의 가사 및 양육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있어 맞벌이를 선택한 여성들은 장시간 근로와 가사 및 육아노동이라는 다중역할 부담을 겪고 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2009)에 따르면, 한국의 맞벌이 세대 여성이 맞벌이 세대의 남성이나 홀벌이 세대의 여성에 비해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과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를 합쳐 전체 일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맞벌이 세대의 여성은 하루 총 9.7시간 일한다. 홀벌이 세대의 여성이 7시간 일하는 것과 비교하면 2시간 42분 가량 더 일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홀벌이 세대 여성이 약 7.5시간, 맞벌이 세대의 여성이 약 9.3시간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총무성 통계국, 2012). 남성의 경우에는 양국 모두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시간이 비슷했다. 가족 돌보기와 가정관리에 쓰는 시간은 오히려 맞벌이 세대의 남성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총무성 통계국, 2012).

이와 같이 맞벌이 세대는 늘어나고 있지만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즉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들은 직장일과 자녀양육, 집안일이라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고은숙과 김명자, 1992).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돕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모로부터 신체 및 정서적 학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낮은 사회성과 높은 공격성을 보이며(Doh 외, 2012), 자아존중감이 낮고, 발달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Erickson 외, 2002). 따라서, 특히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인 영유아기 아동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양육 스트레스, 양육불안감, 부모의 개인적 특성, 부부관계, 일,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원 등의 영향을 받기 쉽다(Belskey, 1984; Crnic 외, 1990; Abidin, 1992; 冬木春子, 2005; Cho 외, 2010). 이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부담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육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낄수록 자녀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체벌 등 강압적이고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유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imons 외, 1993; 唐軼斐 외, 2007; Lee 외, 2008; Kim 외, 2009;

Cho 외, 2010). 또한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행동을 한다는 보고도 있다(Kim 외, 2005).

그러나 Abidin(1992)은 양육 스트레스와 부절적한 양육행동은 단순히 선형적인 관계가 아닌 매우 낮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에서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Kanner 외(1981)는 양육자에게 있어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가신 일(Daily Hassles: 이하 DH)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자녀에게 위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DH가 발생하여 이 상황에 대해 부모가 부담감 및 불쾌감 같은 부정적인 인지를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결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Hillson 외, 1994; 唐軼斐 외, 2007; 朴志先 외, 2012).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주로 가정 내 양육과 관련한 내용에 한정시켜 검증하고 있어 취업모가 직면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맞벌이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과 양육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취업모에게 양육행동은 단지 양육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부담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부모의 우울감 및 일과 가정생활의 다중부담감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자녀에 대한 냉담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小林章雄, 2010).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 및 직무와 직장환경에 관한 스트레스를 동시에 포함하여 취업모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문화권에 따른 직무 및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련성을 비교한 연구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위치하면서 유교문화권이라는 비슷한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분야에 걸쳐 교류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에 그 나라의 관습이나 가치관 등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과 일본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공통점을 비롯하여 상이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비교작업을 통해 양국 취업모의 일과 가정 및 양육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제시 또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 중인 취업모를 대상으로 추후 양육지원 대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일과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은 영유아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Scott-Little & Holloway, 1992). 부모로부터 신체 및 정서적 학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낮은 사회성과 높은 공격성을 보이며(Doh 외, 2012), 자아존중감이 낮고, 발달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Erickson 외, 2002).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인 영유아기 아동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이 요구된다.

양육행동에 관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개념들을 참고로 정리해 보면,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및 발달을 위해 행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Petit 외, 1997; Min 외, 2009). 이러한

양육행동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분류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Hofferth 외(2003)는 자녀에게 지지적인 행동을 취하는 부모인지, 또는 엄격하게 다스리는 부모인지라는 기준에서 분류하고 있고, 이현주 외(2008)는 Buri(1991)가 개발한 부모권위척도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허용적, 권위적, 민주적 양육태도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분류들을 재정리하면 양육행동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녀의 장점과 단점을 강조하는 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분류이고, 또 하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초점을 둔 분류다. 이 두 분류는 다시 각각 두 가지 측면의 양육행동으로 구분된다. 먼저 자녀의 장단점을 강조하는 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경우, 애정, 존중, 온정과 같은 수용적 양육행동(acceptance parenting)과 냉정, 공격, 무관심과 같은 거부적 양육행동(rejective parenting)으로 나눌 수 있다(Rohner 외, 2005).

한편, 부모역할에 초점을 둔 양육행동의 경우, 적절한 양육행동과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두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위해 보호와 교육 등과 같은 적절한 양육행동을 행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이는 아동권리조약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부모는 자녀에 대해 '보호'와 '발달(교육)'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적절한 양육행동을 척도화한 연구로 阿部浩子(2008)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으로 '교육', '영양', '위생', '긴급', '안전', '휴양', '관심'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적절한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을 지나치게 상세히 분류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에 대한 두가지 축인 교육과 보호 측면에서 재분류하면 '교육'과 '관심' 2 요인을 '교육적 양육행동'으로, '영양', '위생', '긴급', '안전', '휴양' 5요인을 '보호적 양육행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육아행동으로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임이 이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Belskey, 1980; 唐軼斐 외, 2007). 여기서 방임의 경우, 적절한 양육행동의 보호적 측면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의 두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는 문화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인지, 학대인지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고, 일치된 견해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하는 빈도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大原美知子, 20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행동은 학자별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수용적-거부적 양육행동의 경우, 양육태도에 근접한 개념으로 양육자의 양육에 대한 정신적인 준비상태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위해 구체적으로 부모로써 어떠한 양육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양육행동을 부모역할에 초점을 둔 적절한 양육행동과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취업모의 스트레스

1) 직무 스트레스

취업모는 가사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직장활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특히 직장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hompson 외, 2006).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직무 환경에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현상으로 정신적, 신체적 긴장상태를 유발하는 현상 및 요인들을 의미한다(정은주 외, 2012). 스트레스가 개인과 환경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 직무 스트레스는 조직원과 그가 속한 환경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개인의 요구에 따라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거나 환경적 요구가 개인의 능

력과 자원을 초과할 때 개인은 직무 스트레스에 처하게 된다(박영호 외, 2000; 정은주 외, 2012).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고혈압, 위궤양 같은 신체적 질환 뿐만 아니라 만성피로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재엽, 2009). 또한 직장에서 디스트레스적인 사회적 경험을 한 근로자는 가정에서 부정적인 어조로 자녀를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petti, 1994).

2)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과 신체적 피로감을 비롯하여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는데 불만을 가지면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 의미한다(Abidin, 1992). Hillson 외(1994)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발생요인으로 양육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Crnic 외(1990)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짜증나거나 성가신 일들, 골칫거리에 대한 일상사로 Parenting Daily Hassles(PDH)라고 표현한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주된 생활 사건들(major life events)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일들(daily hassles)이 더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Kanner 외(1981)는 매일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주요생활 사건보다 양육자에게 더 위협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김현희, 2008 재인용).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행동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清水尙子 외, 2008; 조규영 외, 2010). 특히 취학 전 아동기는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이 시기의 취업모가 겪는 양육 스트레스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양육과정에서의 생활사건들에 대해 唐軼斐 외(2007)의 연구에서는 양육관련 Daily Hassles(DH)에 대해 양육과정에서 부모로서 해야 하는 일들과 부모를 힘들게 하는 아동의 특성 또는 기질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아동 행동과 관련한 내용들로 구성하여 부적절한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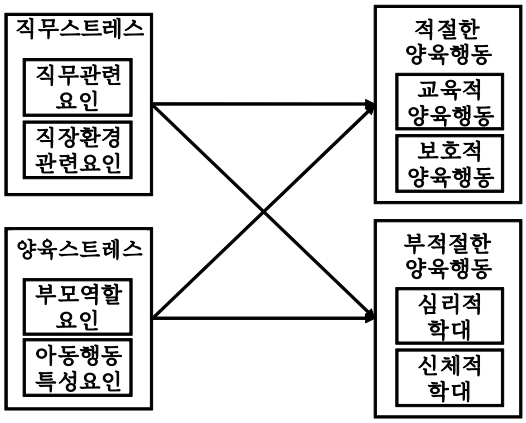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한국과 일본의 대도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2개 도시의 어린이집 8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취업모 154명과 일본 2개 도시의 어린이집 2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취업모 215명으로 하였다. 조사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 졌으며, 조사대상자에게는 조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약속하고,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조사에 동의한 어머니가 집에서 조사지에 응답한 후,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올 때 현관 입구에 준비한 수거함에 직접 넣도록 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한국은 2009년 7월-10월, 일본은 2010년 9월-11월까지 약 3개월간으로 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취업모의 직무와 양육에 관련한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행동과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및 변수 간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취업모의 직무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이며, 종속변수는 취업모의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행동과 부적절한 양육행동이다.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조사내용은 대상자의 기본적 속성(연령, 자녀수, 가족구성, 막내자녀나이, 취업형태), 양육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적절한 양육행동, 부적절한 양육행동으로 구성하였다.

1)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Crnic(1990)이 개발한 'Parenting Daily Hassles Scale(PDH)'을 唐軼斐 외(2007)가 일본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역할요인'에 관한 5문항, '아동행동특성요인'에 관한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에서 '4점: 매우 많이 화가 난다'까지 5점 척도로 하였다. 즉, 득점이 높을수록 양육에 관한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 일들과 그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여 鄭眞己 외(2003)의 연구성과를 참고로 직무 자체에 관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직무관련요인' 8문항, 인간관계 및 직장분위기 등 직장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직장환경관련요인' 9문항을 준비하여 총 1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 전혀 불쾌하지 않다'에서 '3점: 매우 불쾌하다'의 4점 척도로 하였다. 즉, 득점이 높을수록 일과 관련된 일상적 스트레스가 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적절한 양육행동

적절한 양육행동은 阿部浩子(2008)의 '양육행동측정척도'를 참고로 '교육적 양육행동'에 관련한 7문항, '보호적 양육행동'에 관련한 15문항 등 총 2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에서 '3점: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까지 4점 척도로 하였다. 즉, 득점이 높을수록 적절한 양육행동을 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부적절한 양육행동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唐軼斐 외(2005)의 부적절한 양육행동(Child maltreatment) 경향지표 중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심리적 학대'에 관련한 7문항, '신체적 학대'에 관련한 5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0점: 전혀 없다'에서 '4점: 항상 있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어, 득점이 높을수록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방법

먼저 자료의 일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이어 각 측정척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타당성은 척도의 요인구조모형의 측면에서 본 구성개념타당성에 대해 확인적요인분석을 하였고, 신뢰성은 내적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신뢰성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직무와 양육 스트레스가 적절한 양육행동과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인과관계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과 변수간 관련성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토하였다. 더불

어 변수간 관련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연령, 자녀수, 가족구조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연령과 자녀수는 연속변수, 가족구성(0점: 2세대 가족, 1점: 3세대 가족)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분석모형의 표준화계수(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은 비표준화계수를 표준오차로 뺀 값(이하 t값)의 절대치가 1.96이상(5%유의수준)을 나타내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 판정에는 Comparative Fit Index(CFI)와 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RMSEA)을 채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는 0.90이상, RMSEA는 0.10을 넘지 않으면 모형의 적합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파라미터 추정에는 WLSMV법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분석에는 SPSS 12.0 for Windows 및 M-plus Version 2.01을 사용하였다. 최종분석에는 분석에 필요한 모든 문항에 응답한 한국 125명, 일본 17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Ⅳ. 결과

1. 대상자의 일반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한국 어머니가 평균 34.3세(표준편차 2.9, 범위 27-44세), 일본 어머니가 평균 33.6세(표준편차 5.0, 범위 21-47세)였다. 막내자녀 나이는 한국이 평균 3.1세(표준편차 1.8, 범위 0-7세), 일본이 평균 2.3세(표준편차 1.7, 범위 0-6세)였다. 자녀수는 한국과 일본 모두 '2명'이 각각 75명(60.0%), 81명(47.6%)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구성은 한국과 일본 모두 '부부와 자녀'가 각각 110명(88.0%), 139명(81.8%)으로 핵가족으로 구성된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직업은 한국의 경우, '회사원(정규직)'이 58명(46.4%)으로 약 절반 가까이를 나타내고 있었고, '공무원'이 27명(2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의 경우, '파트, 아르바이트'가 90명(5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어 '회사원(정규직)'이 41명(24.1%)를 나타냈다.

<표 1> 대상자의 속성분포

(단위: 명(%))

분류		한국 (125명)	일본 (170)
어머니: 평균연령±표준편차		34.3세±2.9	33.6세±5.0
범위		27～44세	21～47세
막내자녀: 평균연령±표준편차		3.1세±1.8	2.3세±1.7
범위		0～6세	0～6세
자녀수:	1명	35 (28.0)	33 (19.4)
	2명	75 (60.0)	81 (47.6)
	3명 이상	15 (12.0)	56 (23.0)
가족구성:	부부+자녀	110 (88.0)	139 (81.8)
	부부+자녀+친정부모	4 (3.2)	6 (3.5)
	부부+자녀+시부모	11 (8.8)	25 (14.7)

분류		한국 (125명)	일본 (170)
취업형태:	회사원(정규직)	58 (46.4)	41 (24.1)
	회사원(비정규직)	14 (11.2)	9 (5.3)
	공무원	27 (21.6)	30 (17.6)
	파트, 아르바이트	26 (20.8)	90 (52.9)

2. 각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토

1) 양육 스트레스

먼저 양육 스트레스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부모역할요인(5문항)'과 '아동행동특성요인(5문항)'으로 구성된 2요인 사교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χ^2(df)=43.451(20), CFI=0.942, RMSEA=0.097,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χ^2(df)=75.322(34), CFI=0.910, RMSEA=0.085로 통계학적인 허용범위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 측정척도의 내적적합성을 확인하고자 Cronbach's α 신뢰성계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부모역할요인'이 0.717, '아동행동특성요인'이 0.677,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부모역할요인'이 0.723, '아동행동특성요인'이 0.727로 통계학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양육 스트레스 각 영역의 총득점에 대한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부모역할요인'이 7.1점(표준편차 3.2), '아동행동특성요인'이 6.5점(표준편차 3.2)이었고,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부모역할요인'이 6.9점(표준편차 3.4), '아동행동특성요인'이 7.1점(표준편차 3.3)으로 나타났다.

2)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측정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직무관련요인(8문항)'과 '직장환경관련요인(9문항)'으로 구성된 2요인 사교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χ^2(df)=31.907(13), CFI=0.963, RMSEA=0.108,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χ^2(df)=49.196(25), CFI=0.961, RMSEA=0.075로 비교적 통계학적인 허용범위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 측정척도의 내적적합성을 확인하고자 Cronbach's α 신뢰성계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직무관련요인'이 0.784, '직장환경관련요인'이 0.806,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직무관련요인'이 0.839, '직장환경관련요인'이 0.697로 통계학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 스트레스 각 영역의 총득점에 대한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직무관련요인'이 5.1점(표준편차 3.4), '직장환경관련요인'이 4.2점(표준편차 3.4)이었고,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직무관련요인'이 4.0점(표준편차 3.9), '직장환경관련요인'이 2.3점(표준편차 2.7)으로 나타났다.

3) 적절한 양육행동

적절한 양육행동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육적 양육행동(7문항)'과 '보호적 양육행동(15문항)'으로 구성된 2요인 사교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χ^2(df)=39.057(20), CFI=0.964, RMSEA=0.087,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χ^2(df)=74.073(43), CFI=0.934, RMSEA=0.065로 통계학적인 허용범위를 충족시키

고 있었다. 또한 적절한 양육행동 측정척도의 내적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Cronbach's α신뢰성계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교육적 양육행동'이 0.704, '보호적 양육행동'이 0.623,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교육적 양육행동'이 0.799, '보호적 양육행동'이 0.752로 통계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양육행동 각 영역의 총득점에 대한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교육적 양육행동'이 7.9점(표준편차 2.0), '보호적 양육행동'이 17.4점(표준편차 2.4)이었고,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교육적 양육행동'이 6.9점(표준편차 2.5), '보호적 양육행동'이 14.9점(표준편차 3.8)으로 나타났다.

4) 부적절한 양육행동

부적절한 양육행동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심리적 학대(7문항)', '신체적 학대(5문항)'로 구성된 2요인 사교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χ^2(df)=51.970(22), CFI=0.962, RMSEA=0.104,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χ^2(df)=69.192(27), CFI=0.956, RMSEA=0.096으로 통계학적인 허용범위를 비교적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절한 양육행동 측정척도의 내적적합성을 확인하고자 Cronbach's α신뢰성계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심리적 학대'가 0.879, '신체적 학대'가 0.736,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심리적 학대'가 0.874, '신체적 학대'가 0.826으로 통계학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각 영역의 총득점에 대한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심리적 학대(7문항)'가 11.5점(표준편차 4.1), '신체적 학대(5문항)'가 4.3점(표준편차 2.6)이었고,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심리적 학대(7문항)'가 7.3점(표준편차 5.0), '신체적 학대(5문항)'가 3.0점(표준편차 3.2)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측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토 결과

	국가	x^2(df)	CFI	RMSEA		Cronbach's α 신뢰성계수	평균치(SD)
양육 스트레스	한국	43.451(20)	0.942	0.097	부모역할요인:	0.717	7.1 (3.2)
					아동행동특성요인:	0.677	6.5 (3.2)
	일본	75.322(34)	0.910	0.085	부모역할요인:	0.723	6.9 (3.4)
					아동행동특성요인:	0.727	7.1 (3.3)
직무 스트레스	한국	31.907(13)	0.963	0.108	직무관련요인:	0.784	5.1 (3.4)
					직장환경관리요인:	0806	4.2 (3.4)
	일본	49.196(25)	0.961	0.075	직무관련요인:	0.839	4.0 (3.9)
					직장환경관리요인:	0.697	2.3 (2.7)
적절한 양육행동	한국	39.057(20)	0.964	0.087	교육적 양육행동:	0.704	7.9 (2.0)
					보호적 양육행동:	0.623	17.4 (2.4)
	일본	74.073(43)	0.934	0.065	교육적 양육행동:	0.799	6.9 (2.5)
					보호적 양육행동:	0.752	14.9 (3.8)
부적절한 양육행동	한국	51.970(22)	0.962	0.104	심리적 학대:	0.879	11.5 (4.1)
					신체적 학대:	0.736	4.3 (2.6)
	일본	69.192(27)	0.956	0.096	심리적 학대:	0.874	7.3 (5.0)
					신체적 학대:	0.826	3.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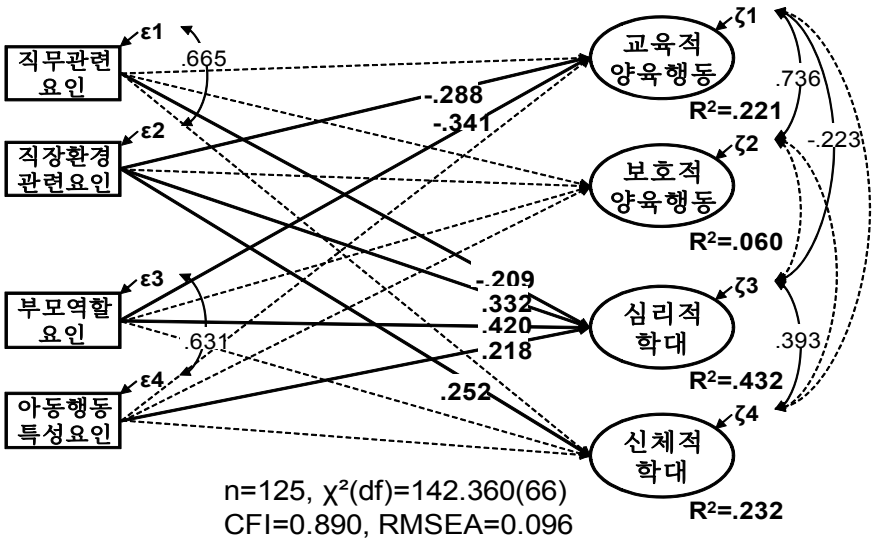
3. 연구모형 검토 결과

데이터 수가 한국(그림 2)과 일본(그림 3) 모두 200명 미만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립변수인 직무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합계득점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는 한국에서는 χ^2(df)=42.360(66), CFI=0.890, RMSEA=0.096, 일본에서는 χ^2(df)=179.285(73), CFI=0.899, RMSEA=0.093으로 양국 모두 통계학적인 수준을 대체로 충족시키고 있었다.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인 '직무관련요인'이 '심리적 학대'에 대해 부(-)의 관련성(표준화계수:-0.209)을 보였다. 또한 '직장환경요인'이 '교육적 양육행동'에 대해 부(-)의 관련성(표준화계수:-0.288)을,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정(+)의 관련성(표준화계수: 순서대로 0.332, 0.252)을 나타냈다.

양육 스트레스 중 '부모역할요인'이 '교육적 양육행동'에 대해 유의한 부(-)의 관련성(표준화계수:-0.341)을, '심리적 학대'에 대해 유의한 정(+)의 관련성(표준화계수: 0.420)을 나타냈다.

일본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인 '직무관련요인'이 '신체적 학대'에 대해 유의한 부(-)의 관련성(표준화계수:-0.182)을, '직장환경요인'이 '신체적 학대'에 대해 유의한 정(+)의 관련성(표준화계수:0.200)을 나타냈다. 양육 스트레스 중 '부모역할요인'은 '교육적 양육행동'과 '보호적 양육행동'에 대해 유의한 부(-)의 관련성(표준화계수: 순서대로 -0.377, -0.317)을, '심리적 학대'에 대해 유의한 정(+)의 관련성(표준화계수: 0.460)을, '아동행동특성요인'은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대해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나타냈다(표준화계수: 각각 0.203, 0.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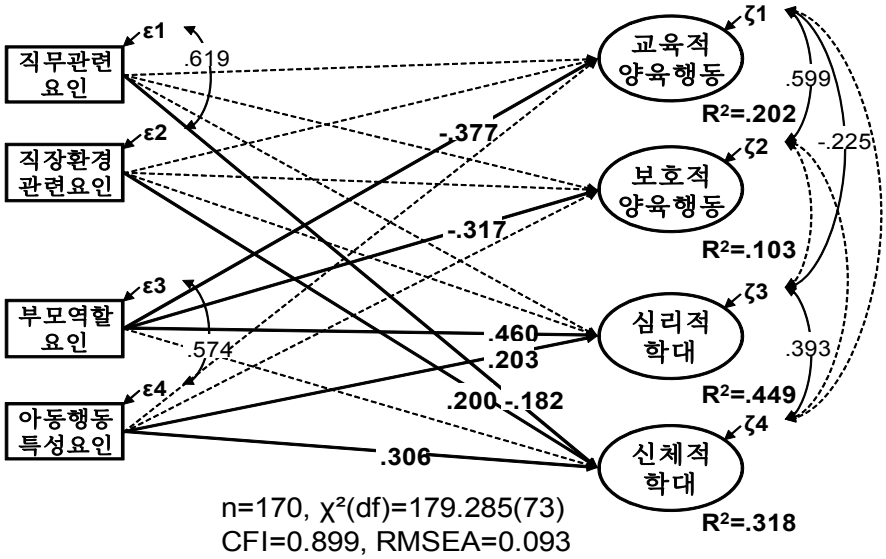


주)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경로 ($p<0.05$) 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계수는 점선으로 나타냈다.
그림의 간결성을 위해 잠재변수에 속하는 관측변수 및 오차는 생략하였다.
또한 경로계수에 대한 수치는 표준화계수로 나타냈다.
'εn'는 관측변수에 대한 오차변수를, 'ζn'는 잠재변수에 대한 오차변수를 뜻한다.
통제변수: 취업모의 연령, 자녀수, 가족구성

<그림 2> 한국 취업모의 연구모형 검토 결과

또한 통제변수로 투입한 세 변수의 경우, 한국에서는 '자녀수'가 '부모역할요인'에 대해 유의한 정(+)의 관련성(표준화계수: 0.402)을 나타냈고, 일본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부모역할요인'과 '아동행동특성요인'에 대해 유의한 정(+)의 관련성(표준화계수: 순서대로 0.341, 0.163)을, '심리적 학대'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의 관련성(표준화계수: -0.150)을, '자녀수'는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대해 유의한 정(+)의 관련성(표준화계수: 순서대로 0.207, 0.248)을 나타냈다. 한일 양국에 있어서 '가족구성'은 어느 변수에 대해서도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율은 '교육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한국 22.1%, 일본 20.2%, '보호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한국 6.0%, 일본 10.3%, '심리적 학대'에 대해서는 한국 43.2%, 일본 44.9%,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한국 23.2%, 일본 31.8%로 나타났다.



주)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경로 ($p<0.05$) 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계수는 점선으로 나타냈다.
그림의 간결성을 위해 잠재변수에 속하는 관측변수 및 오차는 생략하였다.
또한 경로계수에 대한 수치는 표준화계수로 나타냈다.
'ε'는 관측변수에 대한 오차변수를, 'ζ'는 잠재변수에 대한 오차변수를 뜻한다.
통제변수: 취업모의 연령, 자녀수, 가족구성

<그림 3> 일본 취업모의 연구모형 검토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양국에서는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직업적 역할과 가정 내 역할 수행에 대한 성별분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이 대부분을 담당하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취업모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민하영 외,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과 양육에 관련된 사소한 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련성

을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과 일본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검토해 보았다. 분석에는 직무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를 독립변수,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행동과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인과관계 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및 변수간 관련성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국과 일본 취업모의 공통적인 결과로서, 직장환경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신체적 학대에 대한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과 직장환경 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일과 가정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영역을 통해 고찰해 볼 수 있다. 加藤容子 외(2006)는 직장환경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가정 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켜 적절한 대처행동을 방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환경 스트레스가 신체적 학대라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요인이 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일과 가정의 역할갈등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 취업모의 공통적인 결과로서 부모역할요인에 대한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교육적 양육행동에 대한 빈도가 낮아지고, 심리적 학대에 대한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武井祐子 외(2006)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양육불안을 예방하는 것이 적절한 양육행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武井祐子 외(2006)의 지적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심리적 학대에 관해서는 唐軼斐 외(2007)의 부모역할요인에 관한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낄수록 심리적 학대 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부모역할요인은 부모에게 있어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양육방법, 양육의 즐거움과 기쁨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맞벌이 세대에서도 부모가 협력하여 함께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한국과 일본 취업모의 공통적인 결과로서 아동행동특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낄수록 심리적 학대에 대한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문제행동이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관련성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唐軼斐 외, 2007; 朴志先 외, 2012; Cho 외, 2010).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아동행동특성 내용이 영유아기 자녀의 행동특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녀의 행동특성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는 지역양육지원센터가 있어 육아동아리나 육아모임 등을 통해 양육에 관한 부모의 고민이나 동세대 또는 육아를 경험한 선배들과 교류하는 장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류회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산 전 부모와 자녀의 성장에 맞춘 육아교실, 육아상담 등에 대한 공적인 지원체제를 충실히 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감 및 고민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주체성을 해치지 않는 지원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취업모의 경우,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직장환경관련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심리적 학대에 대한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직장환경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교육적 양육행동에 대한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행동의 빈도가 낮아지고, 부적절한 양육행동으로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 역할과 직업역할 간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정 일이 직업역할을 방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직업 일로 인해 가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는다

(Chin 외, 2012). 또한 가족친화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취업모 본인의 필요에 의해 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조직문화가 제도의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후생노동성, 2009).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가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본인이 직접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일과 가정의 역할갈등 수준이 낮다는 보고를 참고로 한다면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행동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일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용이 보다 용이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불어 여전히 일과 가정에 대한 역할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성이 가정역할 수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도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일본 취업모의 경우, 아동행동특성요인에 대한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신체적 학대에 대한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부모역할요인에 대한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보호적 양육행동에 대한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한국의 경우와 구체적인 변수간의 관련성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양육 스트레스가 적절한 양육행동을 감소시키고,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즉, 취업모가 적절한 양육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녀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올바른 인지를 돕는 개입 방안이 요구된다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원인 파악, 부모의 감정조절 및 자녀에 대한 올바른 훈육방법 등과 같은 양육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직무관련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신체적 학대에 대한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문제에 봉착하면 타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자신의 탓을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san Nolen-Hoeksema, 2007).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조금이나마 상대방에게도 어떠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반면, 직무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안으로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책을 하면서 타인, 즉 자녀에게 체벌 등의 행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는 직무관련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추찰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신체적 학대간의 경로계수가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변수의 관계는 추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취업모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적절한 또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수행하는데 직무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육아중인 직장여성들에게는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기 용이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동시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양육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부모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참고문헌

1. 고은숙, 김명자. 취업모의 스트레스원,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92;30(3):45-60.
2. 김미숙, 문혁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005;43(8):25-35.
3. 김재엽, 최수찬, 최보라, 김혜영. 기혼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장-가정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009;47(10):51-61.
4. 김현희. 어머니가 지각하는 Parenting Daily Hassles가 육아스트레스 및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8.
5. 김현희, 박천만, 이종렬, 신효순. 어머니가 지각하는 Parenting Daily Hassles가 양육스트레스 및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9;13(2):207-219.
6. 도현심, 신나나, 김민정, 박보경, 나지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어머니의 학대 및 방임의 매개적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2;30(5):107-119.
7. 민하영, 이영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및 애정-거부적 양육행동간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9;27(6):203-213.
8. 박영호, 김정인.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건강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의 역할, 교육이론과 실천 2000;10:453-481.
9. 이현주, 강민희.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 척도(PAQ) 타당화 및 부모양육태도와 가족 기능과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008;19(3):5-31.
10. 정은주, 안창일.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관한 성차 연구. 여성연구 2012;82(1):137-162.
11. 조규영, 어용숙, 안민순.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 아동간호학회지 2010;16(2):136-143.
12. 진미정, 성미애. 직장 유형에 따른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 지각: 가족친화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2;30(4):13-24.
13.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2009.
14. 통계청. 2011년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집계 결과. 통계청. 2011.
15. 阿部浩子. 働く母親のワークファミリーコンフリクトが育兒行動に与える影響.
岡山縣立大學大學院保健福祉學研究科修士論文. 2008. (비간행)
16. 朝野熙彦, 鈴木督久, 小島隆矢. 入門共分散構造分析の實際. 講談社サイエンティフィク. 2005.
17. 冬木春子. 乳幼兒をもつ父親の育兒ストレスとその影響-父親と子どもの關係性に着目して-. 家族關係學 2005;24:21-33.
18. 加藤容子, 金井篤子. 共働き家庭における仕事家庭兩立葛藤への對處行動の効果. 心理學研究 2006;76(6):511-518.
19. 厚生勞働省. 今後の仕事と家庭の兩立支援に關する調査. 厚生勞働省 2009;1-15.
20. 清水尙子, 住岡里永子, 岸田眞由紀 他. 育兒期における父親の育兒ストレッサー, ストレス對處, ストレス反応の關連. 京府医大看護紀要 2008;17:79-86.
21. 朴志先, 小山義紀, 近藤理惠, 他. 日韓中における就學前兒の父親の育兒關連Daily Hasslesとマルトリートメントの關係. 厚生の指標 2012;59(6):13-21.
22. Susan Nolen-Hoeksema (清水由貴子 翻譯). *なぜか考えすぎる女性のストレス脫出法*. PHP研究所 2007.
23. 武井祐子, 寺崎正治, 門田昌子. 幼兒の氣質特徵が養育者の育兒不安に及ぼす影響. 川崎医療福祉學會誌 2006;16(2):221-227.
24. 鄭眞己, 山崎喜比古. 情報サービス産業における勞働職場環境特性が勞働者の心身の健康, 職務不滿足及び離職意向に及ぼす影響. 産業衛生學雜誌 2003;45:20-30.
25. 總務省統計局. 勞働力調査特別調査. 總務省統計局, 1997.
26. 總務省統計局. 平成23年社會生活基本調査. 總務省統計局, 2012.
27. 唐軼斐, 矢嶋裕樹, 桐野匡史, 種田綾, 中嶋和夫. 親の子どもに對するマルトリートメントの構造化の試み. 日本保健科學學會誌 2005;7(4):269-276.
28. 唐軼斐, 矢嶋裕樹, 中嶋和夫. 母親の育兒關連Daily Hasslesと兒に對するマルトリートメントの關連. 厚生の指標 2007;54(4):13-20.
29. 山本嘉一郎, 小野寺孝義. Amosによる共分散構造分析と解析事例(第2版). ナカニシヤ出版, 2002.

30. Abidin, R. R.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92;21:407-412.
31. Belskey, J. Child maltreatment: An ecological integration. *American Psychologist* 1980;35(4): 320-335.
32. Belskey, J.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1984;55: 83-96.
33. Crnic, K. A., Greenberg, M. T.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1990;61:1628-1637.
34. Erickson, M. F., Egeland, B.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Thousand Oaks, CA: Sage 2002;2:3-20.
35. Hillson, J. C., Kuiper, N. A. A stress and Coping Model and Child Mal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1994;14:261-285.
36. Hofferth, S. L., Anderson, K. G. Are All Dads Equal? Biology Versus Marriage as a Basis for Paternal Inve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003;65:213-232.
37.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et al. Comparison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981;4:1-39.
38. Lee, Y. h., Lee, J. I. The exploration for factors explaining Korean mothers' acceptance-rejection and control of their children at ages of zero to 36 months. *The Korean Society of Women's Culture* 2008;17:87-119.
39. Petit, G. S., Bates, J. E., Dodge, K. A.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1997; 68:908-923.
40. Repetti, R. L. Short-term and long-term processes linking job stressors to father-child Interaction. *Social Development* 1994;3(1):1-15.
41. Rohner, R. P., Khaleque, A., Cournoyer, D. E.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methods, evidence, and implications. *Ethos* 2005;33: 299-334.
42. Scott-Little, M. C., Holloway, S. D. Childcare providers' reasoning about misbehaviors: Relation to classroom control strategies and professional train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992;7(4):595-606.
43.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et al.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993;55(2): 385-398.
44. Thompson, B. M., Kirk, A., Brown, D. Sources of stress in policewomen: A three-factor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2006;13:309-328.